

한 춤꾼이 온몸으로 빚어낸 魂의 色

무대위 20년 「춤작품집」 펴낸 국수호씨



직업춤꾼으로 대본작가로 올림픽게페회식의 총안무자로 한국무용의 수준을 세계에 알려왔던 국수호(43·중앙대 무용학과 교수) 씨가 자신의 무대생활 20년을 '중간결산'하는 「鞞守鑄 춤작품집」(예음)을 내놓았다.

엄격히 말해 '춤사진집'이라 불려야 할 이 책에는 그가 직업무용가의 길로 첫발을 내디뎠을 당시의 작품들 「왕자호동」(1974) 「원효대사」(1976)에서부터 최근의, 일과 삶과 춤의 역동적인 어울림을 통해 한국농경문화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낸 춤이라고 국내외적으로 평가받은 「땅의 소리, 춤」(1989)에 이르기까지 그의 대표적인 작품 31편의 공연사진 및 대본을 실어 무용가 자신의 성장과정뿐 아니라 우리무용의 형태변천과정도 더불어 살필 수

있게 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그 순간 사라지고 마는 무형예술-춤의 특성을 책이라는 공간과 반영구적인 시간 속에 가두어놓고 난 다음의 심정을 그는 이렇게 털어놓는다.

“무대 위에서 보낸 20년을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해서지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춤추어 왔나를 살펴 보면서 앞으로의 춤세계를 계획해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작품마다 최선을 다했기에 새삼 부끄러울 수도 없다고 말하는 그는 무대위의 춤을 '성년식'의 통과 의례와 같이 책에 옮겨 그동안 자신의 춤세계에 영향을 준 분들과 관객들에게 다시 내보임으로써 애정어린 비판을 받고 싶다고 말한다.

지난 81년, 무용가로서의 고뇌와 해외여행(순회공연) 중에 틈틈이 써온 춤에 대한 진솔한 생각들을 기록한 기행산문집 「춤, 내사랑」(문맥)을 이미 펴낸 적이 있는 그는 자신이 그동안 써온 「하얀초상」 「썰물」 「대지의 춤」 등의 무용대본과 논문들을 보완, 단행본으로 묶을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전북 완도産인 국씨는, 우리나라 무용계에서 立志傳의인 춤꾼으로 손꼽힌다. 전주농고시절 민속음악의 장단에 끌려 농악을 배운 일을 시작으로 남자가 춤을 춘다면 다 웃던 그 시절에 춤의 세계로 들어섰다. 그는 이를 “타고난 삶의 운명이며 嗜好였을 것”이라고 말한다. 대학에서 무용, 연극, 민속학을 전공, 공연예술의 기저에 대한 이론을 닦은 위에 스승인 송범(현 국립무용단장)에게서 체계적인 우리춤의 기본동작을 배웠고, 무형문화재 한영숙 이매방 김천홍 박병천에게서 각각 승무, 호남살풀이,

춘앵무, 진도의 무속무와 북춤 등 전통춤의 모든 장르를 섭렵했다. 그의 지칠 줄 모르는 학습편력과 맹렬한 탐구욕은 무용계에선 이미 정평이 나있다.

지난 1973년 국내유일의 직업무용단인 국립무용단에 입단, 이후 「왕자호동」 「도미 부인」 등 20여편의 작품에 주역무용수로 출연했고, 그간의 무대경험을 토대로 83년부터 직접 안무작업에 착수해 「무녀도」 「하얀초상」 등의 대작 극무용과 「허상의 춤」 「무학동」 「북한강에서」 등 10여편의 소품을 안무했다.

이중에서 '태갈부림이나 동작의 교태스런 꼬임이 아닌, 바람부는 들판에서 퍽퍽 소리를 내며 접혔다 펴지는 광목천 같은 느낌'을 주었던 「대지의 춤」(1987)은 그의 춤의 특성을 가장 잘 집약하고 있는 작품. 이는 그의 성장과 예술관 형성의 배경에 춤, 노래, 무속신앙 등 남도문화의 영향이 깊게 배어있음을 알게 하면서, 그의 작품의 특징이랄 수 있는 한국인의 원초적 심성을 우리의 전통춤 동작과 연결, 새롭게 창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의 전통춤을 보면 삶을 삶 자체로 즐기고 괴로와하는 리얼한 심성의 표출과 함께 현실을 초월하고자 하는 상징적 욕구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이러한 우리춤의 특징에는 흑백사진으로는 결코 담지 못하는 '심적인 칼라'가 있어요.” 울긋불긋한 오방색의 독특한 정서나 농경문화의 역동성을 느낄수있는 흰색, 황토색 등은 형태를 부각하는 서구 춤사진과는 달리 칼라사진 위에서 재현될 때만이 제맛과 느낌을 갖더라고 말하는 그는 인쇄가 선명하지 못하다는 결함에도 불구하고 여느

춤사진집과는 달리 작품사진의 대부분을 칼라로 찍은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88서울예술단 총감독으로 있는 그는 오는 10월 무대에 올릴 「백두산 신곡」(김용옥 대본 / 손진책 연출)의 안무와 지휘로 눈코 뜰 새없이바쁜 가운데 8월 중순쯤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 “그가 무대위나 연습장에 보이지 않으면 반드시 새로운 작품구상이나 자료수집을 위해 산속 혹은 해외여행중”이라고 일러주는 동료의 말처럼 이번에도 아니나다를까 하와이 인근의 작은 섬들을 찾은 계획이란다.

“휴가라기보다 그곳에 가서 원주민들의 풍습들을 주의깊게 보고올 것입니다.” 외국여행을 할 땐 반드시 그 나라의 민속적인 특질이 담긴 것들을 사모으는 버릇이 있다는 그는, 이번 작품집의 앞머리에서도 그동안 모아왔던 세계 여러나라의 목각인형이나 북 등 타악기, 그리고 각종 가면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가 동세대의 창작춤들보다 더 풍부히 춤문화의 資源을 자신의 춤작업에 활용하고 있고, 춤형식에 다채로움을 피할수 있는 이유를 가깝게는 이런 데서 찾을 수 있다.

“제가 후배들에게 늘상 강조하는 것이 '투자에 인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견문을 넓히려는 거지요. 제자신 젊었을 때 어려운 환경에서도 시간을 절약해 선생님들을 좇아다니며 다양한 춤을 배웠고 그것이 이제와서 큰 자산이 됨을 절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이지요.”

—정혜옥 기자

우주 여인이 지구에 왔습니다

●90. 2. 10 MBC TV에 방영된 화제의 농부<마이어>와 우주 여인<셈야제> 일본 N. TV에서 농부<마이어>가 살고 있는 스위스 취리히주에 가서 움직이는 UFO를 촬영.

취재하며 세계최초로 방영함으로써 전세계를 놀라게 한 우주여인<셈야제>이야기! 식막한 현대인에게 플레이어테스 성단의 여인이 얘기하는 놀랍고도 신선한 사연들.



농부<마이어>가 촬영한 플레이어테스 성단에서 온 우주여인

● 화제의 장기 베스트셀러

그대, 반짝이는 별을 보거든...

—우주여인 <셈야제>와 농부<마이어> 이야기—

- 주요목차 ●농부<마이어사건>의 충격 ●예수 생전에 기록된 최초의 성경 ●현재 성경은 위서(偽書)인가
- 인류조상은 누구인가 ●밝혀지는 태양계의 비밀 ●바울6세 교황은 암살되었는가 ●우주인의 사랑과 생활
- 예수의 부활은 거짓인가 ●예수 탄생의 비밀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IBM 보오겔 박사의 증언

—NASA·IBM 과학자들의 사실 증언수록—

그곳으로부터 무한한 행복·무한한 사랑·무한한 아름다움·무한한 가치·무한한 지혜가 생겨납니다.<셈야제>

- 오다가 오시아 역음 ●정우인 옮김 ●사진제공 농부 마이어
- 한국어판 국내 독점계약 출판 * 신국판/242면/값 3,500원

시 어 사 대표전화 : (02)549-6817
F A X : (02)549-6816

전국책방과 지하철에 있습니다.

도서주문 진명서적 : (02)272-5871
을지서적 : (02)757-8991